

2026년 2월

시 청 자 위 원 회

- ◆ 일 시 : 2026년 2월 27일(금) 10:30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 | |
|---|----|
| 1. 개회 | 1 |
| 2. 위원장 인사말씀 | 2 |
| 3. 사장 인사말씀 | 4 |
| 4. 위원 의견 제시 & 제작 책임자 답변 | |
| <나눔 0700> 803화, 804화 | 8 |
| <PD 로그> 86화, 87화, 88화, 89화 | 13 |
|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 19 |
|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 | 24 |
| <취미는 과학 여행> | 30 |
| <EBS 왕초보 영어> | 34 |
| <극한직업> 겨울 대목을 잡아라! 과메기와 김 | 39 |
| <세계테마기행> | 43 |
| <신년특집 클래스 e> AI, 모든 것의 미래, 모든 이의 미래 | 46 |
| 5. 폐회 | |

(개회 : 10시 31분)

1. 개 회

○ 심의시청자실장 조혜경

안녕하십니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EBS 시청자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열한(11) 분 중에 열(10) 분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2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병기

성원이 됐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서병기

여러 위원님들, 한 달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데 그래도 한 마디는 하고, 이규정 위원님, 정년퇴임 잘 하셨습니까? 소감 30초만.

○ 위원 이규정

예, 행복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서병기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 위원 이규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병기

저도, 그저께 저도 퇴임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임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퇴임식을 하는데, 금거북이까지 주더라고요. 후배들이 굉장히 그것을 노리던데, 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신문사 39년 생활을 일단은 마감하고 이제, 그래도 앞으로 글은 계속 쓸 건데요. 이제 프리랜서나 칼럼리스트나 평론가나 이런 이름으로 여기저기 쓸 겁니다, 아마 막 벌써 한 네다섯 군데 매체와 계약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열 사장님,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신 거 제가 기사를 몇 개 읽어봤는데, AI에 대한 대처도 제가 보기에 어떤 단체, 기관, 기업보다 빠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의견, 이 정도로 모두를 끝내고요.

먼저 위원님들 의견 제시한 게, 저도 다 받아봤는데, 제시하고 제작자님들의 답변을 하

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상응 위원님이 <나눔 0700>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교양교육..

○ 편성센터장 김광호

위원님, 잠깐 사장님 말씀..

[“사장님 말씀..” 하는 위원들 있음]

○ 위원장 서병기

아, 사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 사장 인사말씀

○ 사장 김유열

언론계의 오랜 선배님이시고, 또 39년 동안 기자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 그 어느 분들보다도 정말 현장에서 계속 뛰신 위원장님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39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어떻게 보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규정 교수님도 언론계에 계시다 또 학계로 가셔서 정년을 하시고,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시청자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게 돼서 EBS로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진 위원 입실(10:34)》

저도 정년이 지났는데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년사를 발표하고, 신년사에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3월에도 취재 요청이 들어온 곳이 한 두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EBS의 AX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도 방송쟁이지만, 오랜 세월 하면서 '이 방송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굉장히 걱정하고, 또 방송 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년사에서 말씀 드렸는데, 2002년도에 방송 4사 광고매출이 2조800억을 했는데 지난해 5,500억대로 떨어졌으니까 1조5천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EBS는 작으니까 광고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때 EBS는 최고로 많이 나왔던 때가 한 400억대 되다가 지난해 190억 했으니까 EBS는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 방송 3사 입장에서 보면 각사가 평균적으로 한 5천억씩 떨어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게 방송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EBS는 불행 중 다행인 건 광고 비중이 적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광고 비중이 적냐고 불만도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광고 비중이 적었던 게 또 이렇게, 전체 예산의 한

5%대 정도 되니까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계는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올 1월에도 20%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억대에서 20% 빠지면 방송 4사, EBS 빼면 이제 1천억대로, 지금 2개사가 이미 1천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교과 쪽에 비방송 사업 수익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방송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광고의 위기를 피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부터, 제가 170억 때 EBS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3천억을 넘어섰으니까, EBS는 통계적으로 보면 고도성장을 해 왔고, 그런데 그 부분도 방송 부분보다는 비방송 부분 쪽에 비중이 커져서, 그래서 제가, AX를 왜 이렇게 방송사 사장이 방송 본업이 아니고 인공지능 쪽에 집중을 하나면, 어떻게 보면 EBS가 살아온 길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EBS는 인터넷 시대에도 성장을 했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EBS는 방송으로서, 방송사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EBS의 웹사이트가 12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EBS가 매출 구조로 보나 전체 외형으로 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방송사지만, 내용적으로는 출판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고, 또 IT 웹사이트를 12개를 갖고 있는 교육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AI 시대에 EBS가 한번 도약할 기회가 오겠다 해서 올해 경영목표를 'AI 전환'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도 거기에 맞춰 썼더니 언론에서 관심이 지대해서 여기저기 지금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하나의, 또 이것도 굉장히 EBS적인 겁니다. 다른 방송사에 없는 건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위원장님도 과거에 많이 써주셨는데, 세계 최대 도서관하고 대학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콘텐츠, 문서 콘텐츠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다 공급하는,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거기도 매출이 한, 그런 회사인데도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레이트 마인즈>가 입점을 해서 전 세계의 대학과 도서관에서 EBS 콘텐츠를 이용하는, EBS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식채널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저도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예전서부터 해 왔는데, 그런 게 빛을 발

하고 있고, EBS는 어떻게 보면 제3의 길로 지금 이 방송의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편성에서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생성형 AI로 만드는 콘텐츠가 올해 대거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AI 고전-역사를 바꾼 100책>의 경우는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국부론을 강의하는, 칸트가 나와서 순수이성 비판을 강의를 하고, J.S Mill이 나와서 자유론을 강의하는 그런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아마 <그레이트 마인즈> 뒤에 바로 연계 편성이 돼서, 또 프로퀘스트에 이 부분을 공급할 수 있으면 이제 전 세계로 다가가 정말 EBS 지식 콘텐츠를 확장시키려고 해서, 지난해 시험방송을 했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데일리 두 떠나, 그러니까 주당 10편씩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대폭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문학관, 20~30년대 소설도 AI로 복원해서 <AI TV 청소년문학관>도 편성이 되고, 또 기타 다른 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방송사이지만 ‘이런 작은 방송사일수록 이런 변화의 시기에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올해 그러한 걸 하려고 굉장히 구성원들이 준비를 꽤 오래 해 왔고, 아마 조만간 위원님들도 직접 보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3월 말부터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2025년도 지난해 결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산 확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4년도에 한 16억 정도 소폭 흑자가 났는데, 흑자폭이 확대돼서 지난해에는 48억 흑자로 최종 결산이 됐고요. 저희들로서도 다행스러웠던 건, ‘24년도에 당기 순이익은 났는데, 또 영업수익은 1억 6천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영업이익도 한 42억 정도 나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산업이 굉장히 위기인데 EBS는 그래도 어렵지만 흑자 달성을 했고, 또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좋아져서,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은행에서 올해는 하나도 안 빌려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예치금 갖고 이자수익이 날 것 같다.’ 보고를 해서, 올해 1월 상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EBS 구성원들도 그렇고 꽤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아져서 저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요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성, 제작, 그다음에 경영 관련 정보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심의시청자실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괜찮으면 나중에 콘텐츠 말고 경영에 관한 의견도 한번 저희들한테 그런 고견을 주실 시간을 주시면 경영부서에 있는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하여튼 소중한 의견 주시고, 그러면 편성·제작·경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제가 이렇게 주옥같은 말씀을 빠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느낀 게 있어서 간단히 1분만 할게요.

지금 지상파 광고시장이 거의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상파 4개사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EBS만 유독 보면,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다뤄줍니다, 항상. 제가 쪽 역사를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사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제작비가 600억이에요. EBS 1년 통틀어서 제작비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저희가 500억대.

○ 위원장 서병기

그러니까 그걸로 이 정도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때 여기 계시는 간부님과 사장님, 다 힘을 합쳐서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청자위원회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소통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사실 이 시간이 EBS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더 열심히 머리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4. 위원 의견 제시 & 제작 책임자 답변

< 나눔 0700 > - 803화, 804화

○ 위원장 서병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 의견 제시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상웅 위원님부터.

○ 사장 김유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서병기

예, 알겠습니다.

○ 사장 김유열

다음에는 계속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가십시오.

《김유열 사장 퇴실(10:46)》

○ 위원 서상웅

저는 <나눔 0700> 두 회차를 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 0700>은 15년 동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또 이 사연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그 참여자들이 ARS 방식을 통해서 또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매 해 말미에는 지난 사연의 주인공들의 변화된 모습과 지원 결과를 간략히 소개함

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함께 기부자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803화는 자폐를 가진 큰 딸과 돌봄이 필요한 둘째 딸 5살을 자활근로를 하면서 홀로 키우는 엄마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804화에서는 희소병으로 지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위암을 투병하면서 폐기물 수거로 홀로 키우는 엄마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두 회 모두 장애 자녀의 수술비와 치료, 생활비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홀로 자녀 케어를 위해서 파트타임의 일밖에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소개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어떤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점과, 또 가족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또 지나친 감정 호소를 하지 않았던 점들이 두 회를 보면서 대상자들을 배려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언이라기보다 저는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우선 이러한 사연이 매주 소개가 되는데, 안정적인 소재 발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소재를 발굴하기에 어떤지, 프로그램을 연관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밀알복지재단, 그리고 부영그룹이 있어서 어떤 기부처와 참여, 운영의 NGO 주체를 알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회 지원금이 비슷한 규모인데, 대략 2,500만원, 2,600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고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아마 ARS 참여를 통해서 add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ARS 참여율이 높은지와, 그리고 또 방송시간 외에도 재방송을 보면서 기부가 가능한지가 궁금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방영과 기부를 통해서 대상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워도, 긴급한 지원 및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1회차 방송 외에도 타 지원을 유도하고 다른 단체들 지원을 유지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는 주관 NGO 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추가로 매 한, 방송되었던 한 팀에 대해서는 사례 소개를, 지원 결과를 뒤에 방송에서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EBS를 통해서, 또 다른 단체 지원들이 더 많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묶어서 방송해 주면 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많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나눔 0700>에 대한 의견과 질문 몇 가지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제작기획부장 안소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기획부 안소진 부장입니다.

<나눔 0700>에 대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눔 0700>은 2010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했고, 올해 16년에 접어드는 국내 대표 모금방송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소재나 사례자 발굴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데요. 제작진이 하루 평균 한 80여 통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과 접촉하면서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관, 장애인협회,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환우회, 병원 사회복지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례를 추천받고 있는데, 사례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래도 도움이 절실한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방법 관련한 답변입니다.

모금 방법은 1통에 3천원인 ARS 모금, 그리고 사례자를 특정하여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모금,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모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방송 외에 재방송이나 아니면 평소 방송시간 외에도 기부가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요새 평균 ARS 조회 수가 4,000콜 정도 돼서 그렇게 되면 한 1,200만원 정도이고요. 계좌하고 온라인 사이트 모금을 합하면 한 500만원 정도여서, 저희가 2,5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ARS 콜 수, 계좌, 온라인 사이트 모금과 여기에 기업후원금을 더해서 2,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업후원금을 정기적으로 1년에 특정한 금액을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금 관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고 있고, 후원금 집행 관리는 대한사회복지회가 EBS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칙적으로 NGO 단체와 저희, 그리고 도움 주시는 자문단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진

행하면서 사례를 관리하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례자의 변화된 모습은 시청자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9월에는 저희가 <나눔 0700> 15주년이 돼서 특집으로 그간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송을 했는데, 보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감동이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레귤러 편성 중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After 편들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 편수를 늘려서 시청자들이 나눔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례자들에게 도움 주고 시청자들에게 감동 주는 <나눔 070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말씀 감사하고요. 방송시간 외 기부도 가능한지 그 부분.

○ 방송제작기획부장 안소진

예, 방송시간 외에 기부가 가능하고요. ARS 번호가 계속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모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카카오같이가치'와 협력해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시간 외에도 계속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병기

이런 프로그램의 고전 같은 격인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하고 <동행>을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거든요.

<동행>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외주 제작사에서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방송이 되는 수요일이나 이렇게 밤 되면 야근을 하더라고요. 거의 고전적인 방식이죠. 전화를, 그리로 와서 방송을 보고 ARS를 하고 그 이후에 돈을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고' 이런 것을 제작사에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랑의 리퀘스트>도 가수가, 연예인들이 가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그거 할 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노래가 극적인 감정을 줬다거나 이럴 때 ARS가 확 올라가고 그런 경험을 제가

전진국 PD하고, 부사장까지 올라간 분인데, 전진국 PD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한국 통신하고, 그때는 지금하고 다를 때인데, 그 말까지 하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도 더 재미있게 만들자.'

그리고 <동행> 같은 경우는 이승기가 거기 들어가는 걸 제가 관여를 했는데, 거기 강태원 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에 이승기가 매달 100만원을 해서 1억인가를 그걸 했는데, 신발을 사주고, 해마다 그 친구들한테 그거 하나씩 너무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요즘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나눔 0700>만의 분위기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 PD 로그 > - 86화, 87화, 88화, 89화

○ 위원장 서병기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교양교육입니다. <PD 로그> 저도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규정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 위원 이규정

<PD 로그>는 지금 보니까 꽤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4회 분 정도 방송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보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1~2편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 치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PD들이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에 직접 참여하면서 체험하는 리얼 노동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동안 해너라든가 집배원, 또 동물 수의사, 라이더, 경찰관, 이렇게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PD들께서 직접 경험한 노동과 삶의 의미를 조명해 왔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은, 매 회차마다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 같은 경우도 비교적 깊이 있게 보여줘서 사회적 의미와 진짜 노동의 가치를 되짚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PD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체험방식 덕분에 날 것으로 그대로 현실을 비교적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소개가 아니라, PD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서서히 녹아 들어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PD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과정까지 충분히 다뤄내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장면의 연출과 편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얼마나 저게 현실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의 강도가, 여기 보니까 여성 PD, 남성 PD가 2명, 2명 이렇게 돼 있더라

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 강도가 물론 아이টে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게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연출적인 요소라든가 극화되는 어떤 그런 구성이 보여서 그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스테레오 타입의 소비 감성형 드라마에 가까운 체험하고, 고생하고, '아,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다.' 이렇게 단순한 서사 구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나아가서 가장 저거한 것은, 이런 유사 프로그램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다는 게 저거고요. 단지, 'PD들이 한 게 과연 그게 얼마나 저거할까.'

그리고 요새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송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부는 <극한직업>이라든가 <인간극장> KBS, <다큐 3일> 이런 것들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 세상에 프로그램이 '창의적이고 가장 독특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 <삶의 체험현장>이라고 KBS 워낙 히트 쳤던, 또 거기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게 꽤 오래 방송을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단지 유명인사가 아닌 PD라는, PD가 나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건데, 특별히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과연 <PD 로그>가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해외 수출 이런 쪽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시청률이 다른 것보다 경쟁률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작비 절감은 굉장히 큰, '여기서 보탬이 된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브이로그 형태의 어떤, 요새 사실 소비 행태가 워낙 저거해서 굉장히 슛츠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사실 프로그램은 여기 <세계테마기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대로 흘러가면서 보는데, 이게 그렇게, 한 50분 이렇게 끌여가는 힘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짧게 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배달 이런 쪽에 해서, 수입도 그때 보니까 한 500, 많이 하면 800~900 이렇게 소득을 얻는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저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저거하고, 예를 들어 화천 그런 데는 ‘아, 나이 먹어서 그런 쪽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든가 이런, 너무 여기에 이렇게, ‘체험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게 없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AI 시대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들 텐데,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 교양교육부장 김동열

안녕하십니까. <PD 로그>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교양교육부장 김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D 로그>라는 프로그램은, PD가 직접 노동의 현장에 찾아가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인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최초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D가 바로 직업 현장에서 생활 밀착형 시선으로 전달하고, 노동의 가치와 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가 연예인이 아니라 초보자다 보니까 옆에서, 저희가 지금 <PD 로그>는 8명의 PD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연하는 것 자체에 조금 거부감을 가진 PD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원하는 PD들을,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직접 앞에 나서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하면 좋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카메라 뒤에서 제작할 때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제작할 때의 차별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한계나 이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나 고생, 깨달음 이런 게 약간 반복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게 약간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꼭 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찰 김장이나 산사 체험, 아니면 마라톤, 혹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견 훈련병 이런 부분들도 다루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직업 소개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직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약간 유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PD가 옆에서 직접 그 일을 같이 하거나 일을 배우거나 혹은 같이 체험을 하면서 순간순간 PD가 가지는 어떤 공감대나 문제의식이나 혹은 궁금증을 옆에서 직접 물어보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컨셉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PD들이 카메라 뒤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조율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 카메라 안에 들어가 버리면 PD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프로그램 내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 형태의 실험을 나름 성공적으로 안착은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PD 로그>가 2024년 5월 6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대규모 PD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평균 한 0.9 정도 나왔던 프로그램이고요. 그 시간대에 비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도 다시 한 번 휴지기를 가지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주가 사실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보완해서 혹시 유사 포맷 프로그램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시 제작하게 되면 의견 반영해서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규정

그리고 EBS 해외 수출 이것은 시간이 오늘 보니까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제가 편성 책임자로서, 아마 EBS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설명 드려야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거나 하시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요.

EBS는 타 방송사보다 훨씬 더 편성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서 봄·가을로 편성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PD들의 물론 자발적인 기획안 공모의 기획안들을 수렴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편성 쪽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방송 현업 현장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봄·가을 개편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데요. <PD 로그> 같은 경우는 당시 EBS 상황과 방송 환경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PD 로그>를 기획할 때 전반적인 방송국 방송 환경과 EBS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제작비라든지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보다 모험적인 도전들을 많이 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정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정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감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직업>을 패러디한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기획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방금 전에 김동열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은, EBS 인력구조가 지금 미들 층이 굉장히 취약하고, 시니어와 주니어가 많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주니어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에 투입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업에서 새로운 소재 발굴의 한계들을 토로해서 오늘까지, 이번 편성까지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외 수출 부분은 간단하게, 짧으니까 한 2분 정도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매년 수출액은 '23년 6.9억, '24년 6억, '25년 5.6억 해서 평균 한 6억 정도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방송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인데요. 이는 콘텐츠 장르적 한계가 주요 원인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쪽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다큐라든지 교육 콘텐츠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 담당 직원 역시 1명이고 해외 지사가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에이전시를 발굴해서 한 18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라든지 러시아, 태국 등에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이 전략으로 확대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기행> 패스트채널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류 콘텐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기행>, <최고의 요리 비결>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프로퀘스트 진출, 이게 약 1억원이 넘는 수출액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의 수출 확장 모델이 생길 것 같다. 그 부분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PD 로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

○ 위원장 서병기

세 번째는 교양교육이네요, 또.

제가 의견 낸 건데요 저는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는 출연진들, 지금 12명 하고요, 시즌1을 하고 시즌2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12명에게 삶과 철학을 짚어보면서 ‘진짜 성공이 뭐고 진짜의 부리는 게 뭔가.’를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차별성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공익성도 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즌1 1회 때 나간 헤어디자이너, 그걸로 벌써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참 이 프로그램의 어떤 Identity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기존에 부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민갑부> 이런 것도 있고 그 게 ‘어떻게 성공하였고’, 자산규모 같은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면, 이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출연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방송된 대한민국에 단 1명뿐인 청국장 명인, 서분례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방송이 됐어요.

매출을 청국장으로 100억을 올리는, 이걸 보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의 스토리가 평범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깨달음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자세히 보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한 편 정도, 두 편 정도만 본 사람들은, 정확한 의도를, 그거에 앞서서 ‘그냥 부자 소개하는 프로그램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기획 의도와 선정기준 같은 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MC 서장훈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그러던데, 그때 제작 발표할 때 보니까요.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출연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인데, 이런 정체성과 기획 의도, 그다음에 선정 기준 이런 게 조금 더 시청자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저는 이 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번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자신의 삶이 풍요한지, 그런 건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도 돌아보면 잘 모르잖아요. 제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번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기획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그냥 날개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진행자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역할 분담이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면 맞닥뜨려야 할 일이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요.

서장훈이 타이틀 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메인이 돼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시즌1은 서장훈과 조나단이 했고, 지금 장예원이 조나단 대신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데, 약간 서장훈이 메인이고 장예원이 보조적으로 돼 가는 양상도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장훈이 더 메인이지만, 역할 분담을 해서 두 캐릭터의 차별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나올 것 같고, 또 여기는 남녀니까 장예원이 보조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청국장 할머니가 장예원을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예원 씨가 공감력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던지는 질문이, 배우들한테도 조연이나 단역들한테 굉장히 비중이 없고, 그래서 별로 기여하는 게 없다고 이러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뭐냐? 어떻게 나누느냐? 방송 분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 서사구조가 있으면 주인공이에요. 그래 갖고 내가 탤런트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MC도 그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MC의 역할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분담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작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 교양교육부장 김동열

안녕하십니까. 또 김동열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곤란한 질문만 드렸어요.

○ 교양교육부장 김동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워낙 첫 회부터 봐 주셔가지고, 제작진이 하고 싶어 하는 제작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서 사실 위원장님과 같은 시청자들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날개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매번 제작진들과 싸움을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을 보여주는 게 기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장훈 씨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를 공통질문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나 철학, 특히 돈에 대한 철학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로 대표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연자 선정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제작진들도 수없이 많은 후보들을 선별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단순한 부의 크기보다는 자신만의 철학, 서사와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2.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 그리고 3. 돈을 축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거나 혹은 환원에 열심인 사람, 그리고 4.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과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4개를 동시에 가진 부자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계속 제작진들과 매회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회

환원하는 부자가 나오는 편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물론 저희가 찾기도 찾지만, 방송 출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섭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저희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섭외를 하다 보니 보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출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이 왜 EBS에서 저 사람을 섭외를 해서 보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라는 그런 질문도 제가 제작진들에게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에 저희가 한 가지 기준 이상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사실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도. 사실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 질투 이런 게 크게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부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계속 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더 명확히 프로그램 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들에게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할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진행자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장훈 씨가 메인이고 예원 씨가 서브 역할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작진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장예원 씨의 역할이 무엇이나?’라고 했을 때, 서장훈 씨는 기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할 때, 출연자들이 서장훈 씨가 워낙 ‘2조 부자’ ‘2조 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니면서, 일단 출연자들이 서장훈 씨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장훈 씨가 뭘 얘기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귀담아듣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장훈 씨가 워낙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스킬들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서장훈 씨는 주로 ‘부자의 삶과 돈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주로 물어보는 역할들을 하는 MC의 역할이고요.

아시다시피 장예원 씨는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출연자의 감정에 조금 더 공감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출연자들이 전부 다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수많은 스텝들 앞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예원 씨의 역할이 꽤 크게는 작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이 물론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방송에서는 약간의 서브 역할만 보이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질문들을 조금 더 잘 분배해서 장예원 씨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말씀 감사합니다.

장예원이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출연자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 친구가 그런 역할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 EBS 다큐프라임 > - 주식의 시대

○ 위원장 서병기

그다음에 <EBS 다큐프라임> 교양교육, 문헌규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 문헌규

안녕하세요. 문헌규 위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피가 6,000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쓸 당시만 해도 5,000이 겨우 넘었을 때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슈의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송 콘텐츠 상 2부 안에서 적절하게 배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왜 이와 같은 주식 생태계가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부터 한국 YWCA에서 금융교육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내용들을 우리 청소년과 취약 계층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의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장 사회적인 이슈와 취약 계층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맨날 주식 투자할 때마다 잃을까.' 거기 있는 대상들이 저랑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주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저희가 네덜란드의 그런 Guild 생태계를 통해서 전 세계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적인 측면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산업적 이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EBS는 항상 교육적 중립과 어떤 현장에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까지는 해 주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가보면 군인까지 다 포함해서 취약 계층,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금융, 기획재정부부터 각 기관마다 금융 교육을 하지만, 함부로 주식

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쉽게 잘 접근할 수 있었고, 좀 더 추가적인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6,000이 넘어가면서 더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들에게는 유튜브의 자극적인 투자 콘텐츠만 접할 수 있다 보니, 신뢰성 있는 EBS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취약 계층들이 좀 더 안전한, 안전한 투자는 없지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AI를 활용한 투자 기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보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장 증권맨들이 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AI 시대의 투자 생태계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정말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육적 측면으로 좀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 안에 한정된 내용으로 알찬 내용,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왔던 많은 주식 책들의 내용들이 다 꼼꼼하게, 알차게 들어 있었고, 1초도 놓치지 않고 잘 편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약간 doing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제작진한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답변 주십시오.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읽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써주신 글을 읽고 '어쩌면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읽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기획할 단계에, '코스피 5,000을 얘기하는 시대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국민들의 성장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주식 투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PD들이 두 편에 소화하기에는, 특히 첫 번째 편 같은 경우 '한 편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편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게 시한을 정해 놓고 일정 시기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주식시장은 특히나 방송 일정을 연기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아보자. 그리고 주식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거나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을 시청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작하면서 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셨던, 인터뷰하셨던 분들도 본인들의 경험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 빚투부터 시작해서 레버리지 투자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런 사례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그것을 한 편에 다 담아서 프로그램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 자르고 그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제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또 다른 방송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하면서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위원회에 전부 다 협조를 받아서 제작했고, 'EBS니까'라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협조들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했던 게,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금융과 생활경제'라는 교과서가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 학교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지식을 쌓아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제작됐던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의 고민을 그대로 다 읽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이상진 위원님도 <다큐프라임-주식의 시대> 2주에 걸쳐서 한, 같은 데 대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시죠.

○ 위원 이상진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님도 계속 요즘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을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6,000까지 넘어가니까 국민들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투자,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방송들은 우리가 재테크, '투자를 어떻게 잘 한다, 혹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트렌드나 아니면 산업 정보에 대한 것,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저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1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운이나 정보력이 아닌,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못 하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7일 만에 팔고, 손실 회피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얘기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런데 지금 누구나 고민하는 것은 '이 주식시장이 또 갑자기 떨어지는 것 아니야?' '버블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칫하면 투자 열풍이, 투자가 투기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사실 사회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금융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끔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메시지가 그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코멘트나 이런 것을 할 건 없는데,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투자도 있고, 아니면,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지역의 소멸이나 얘기를 하면서 상호금융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금융, 아니면 또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 가치를 고민하는 금융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의 문제나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대안적인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또 다시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추후에 조금 더 제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편으로 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공감을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인터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때 했던 인터뷰들을 담당 PD가 지금 자기 시간 날 때마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모자랐던 인터뷰들은 좀 더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은 안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공하려고, 그래서 편집해서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방송하고 결합돼 가지고 EBS가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과 결합해서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음 아이টে, 청년세대의 고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루면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확장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아이টে들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기반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창윤

최창윤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요. 2부에서 'AI 버블, 역사는 반복될까?'를 과거 유럽 중심으로 했었는데, 사실 한 2~3년 전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관련해서도 주식 테마주로서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까지 같이 얘기가 됐으면 조금 더 취지에 맞게 전달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예. 그 부분도 제가 제작진한테 잘 전달해서 향후에,

○ 위원 최창윤

알겠습니다.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예.

○ 위원장 서병기

의견 제시도 구체적이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 취미는 과학 여행 >

○ 위원장 서병기

다음은 <취미는 과학 여행>에 김현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 위원 김현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시청한 콘텐츠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펀오프 프로그램 <취미는 과학 여행> 6부작이었습니다.

스위스와 미국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새로운 장소라는 신선함이 더해져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여행 예능 형식을 취하면서도,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학적 탐구를 적절히 배합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출연진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편에서는 원래 <취미는 과학>의 진행자였던 데프콘 씨를 대신해서 미국 편에서는 김풍 씨가 나왔는데,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고 시청자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전 회차에 출연한 원지 씨의 경우, 촬영 때는 괜찮았겠지만 후에 개인적인 논란이 있어서 시청자 의견들을 지켜보니까 ‘왜 하필’, EBS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니까, ‘아, EBS는 어떡하지? 하필이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시에 데프콘 씨에 대한 호감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데프콘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출연자들의 방송 언어를 유심히 보는데, 프로그램 전반에 ‘미쳤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아무래도 ‘과학’이라는 키워드, 지금은 이과의 시대니까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도 같이 앉혀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보는데요. 교육 채널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더 고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출연자들에게 지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어휘 다양성 부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언어를 감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EBS 리포트에서도 <과학 여행>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리포트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보니까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조회 수도 굉장히 높았고 반응도 꽤 좋아 가지고 다른 후속 프로그램 계획하고 게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내 여행지로도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미국 지질 소개하는 곳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어디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과학자께서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점들을 보여주시면, 학부모들이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가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가보는 것이 주말 학부모님들의 좋은 루틴이기도 한데, 과거에 <알쓸신잡>을 보면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지역을 다시 시청자들이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SNS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취미는 과학 여행> 국내 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부모님들이 주말에 자녀와 함께 방문해서 직접 보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고취시켰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 생각보다 열망이 상당히 가지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이들 다니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기획 같은 것 제안을, 제언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여기 써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KBS에서 나왔던 <인재전쟁>이라는 그 다큐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의 인식을 바꿔 놓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대' '의대'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라고 인식이 전환되는 그 거대한 흐름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이곳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번 입시를 치르면서 많이 체감을 더 확실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단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 네임밸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를 어떤 곳인지 설명해야 한다 라는 그 부담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EBS가 공영방송이니까 인식 전환을 이끌어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언어 사용에 항상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EBS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그거라서 편집할 때도 되게 유의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놓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현장의 분위기가 여행이다 보니까 아마 여행에 대한, 특히 유튜버가 같이 참석도 했고, 그다음에 김풍 씨나 데프콘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는 과학 여행>은 <취미는 과학>의 오프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였고요. 마침 그래도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사업에 돼 가지고 저희가 <과학 여행>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요. 원래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특집으로 야외 제작을 했으면 싶어 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시도는 했었는데, 그렇다고 과학적 스팟에 가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럴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외 제작 특집을 구성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시다. 그다음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더 유의하겠다.'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지 부분은, 저희가 이미 촬영이 다 끝난 상황이었었는데,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제작진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원지가 담당했던 역할들이 질문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데프콘과 데프콘의 일정이 안 돼서 김풍이 하기는 했었는데, 김풍의 역할보다는 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원지 자체가 지질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라는 걸 또 표명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여행과 과학이 결합되니까 원지를 선택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다가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다행히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원지가 사과도 한 세 차례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지를 사랑하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은 항상 제작 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 향후에 제안 주신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과학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뿐
만 아니라 <다큐프라임> 제작진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 아이
템으로 현재 상정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지역의 과학기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더구나 지방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EBS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씩 보여줄 수 있다
면, <취미는 과학 여행>에. UNIST인가 GIST 중에 둘 중 하나 총장님이 이장원 아버지
이예요.

○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예, 울산.

○ 위원장 서병기

제가 이장원을 작년에 세계문화산업포럼 세션 진행자로 해 봤거든요. 진행을 잘 하더라
고요. 그리고 <KBS 인재전쟁>에 제목이, 제목에도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거 반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그랬더니, PD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위에서 부
장이, 담당 데스크가 그냥 가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 받쳐줘 가지고, 진짜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여러분들 ‘저장’이라
는 데 있잖아요, ‘저장’. 딥시크를 만든 친구 량원평인가, 그 친구가 자란 곳이에요.

실리콘밸리 안 가고 토종으로만 해도 충분히 Chat-GPT 능가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취
미는 과학 여행>이라는 게.

말씀 고맙고요.

< EBS 왕초보 영어 >

○ 위원장 서병기

그다음에 학교교육 쪽인데, <EBS 왕초보 영어>에 두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장영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장영배

안녕하십니까. 장영배 위원입니다.

저는 <EBS 왕초보 영어>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살펴보게 된 것은, 시청자분께서 저희 지자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칫 이 위원회가 불만 해소 창구가 될 수 있을 우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정성을 들여서 찾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왕초보 영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최근 방송을 봐보니까, 이 <왕초보 영어> 자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학습 부담을 완화하려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진행 방식이 크게 어긋나지도 않았고, 사실 문제를 제기했던 보조 진행자의 진행 방식 역시도 저한테는 크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악성 클레임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 게스트가, 보조 진행자가 있던 것부터 쪽 살펴봤는데, 그동안 쪽 오랫동안 애청을 한 애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 박슬기 보조 진행자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공감은 조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마유라는 메인 MC보다도, 박슬기라는 보조 게스트가, 보조 진행자가 조금 더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진행자를 조금 압도하는 부분이 들다 보니까, 교육을 중심으로 그전부터 쪽 봐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슬기라는 보조 진행자가 진행하는 부분이 취지와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하는 제작국 입장에서 신규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애청자를 유지하는 측면도 고려했을 때 시청자와 공감을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애청자도 유지하면서 신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잡고 살펴봤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답변 전에 최창운 위원님도 같이 이어서 질의, 의견 개진하고 답변 듣는 게 낫겠습니다.

○ 위원 최창운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분의 그간의 보조 출연자가 방송한 부분을 꼭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보조 출연자의 어떤 역할이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한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 영어학원을 가거나 일반 영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뭔가 강의를 하거나 리딩 하시는 분이 조금 활기 있게 하는 부분은 특히 회화 수업에서는 일상적으로 있긴 한데, 또 저희 EBS 프로그램 중에는 재미에 좀 더 국한해서 하는 회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시청자나 타겟 시청자가 혹시 어린이나 10세 전후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20~30대를 타겟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은 또 실버나 중장년층도 영어회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메인으로 하는 타겟 시청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특히 보조 진행자를 어떻게, 지금 상태일지, 아니면 주요 시청자들의 보이스를 받아서 개선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저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보게 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할까?' 이것저것 보면서 시청자 피드백이나 이걸 보다 보니까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에 그런 시청자의, 소수이실 수는 있겠지만 피드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히 이게 매일매일 콘텐츠가 바뀌니까, 예를 들면 지난 회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자극적인 부분도 다음 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회화에 어젠다로 넣으면서, 토픽으로 넣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소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간에 어떻게 고민돼 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인재교육부장 안성식

AI인재교육부장 안성식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 영어 채널에서 사실 올해 유일하게 신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10년째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창운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주 시청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 맨 처음에 기획된 건 온가족용 왕초보 탈출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 영어강사와 함께 보조 출연자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출연자의 기본 컨셉은, 프로그램을 띄우고 난이도를 쉽게 흥미감을 높이는 개그맨 중심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물론 탤런트 김민희 씨도 한 번 있었는데, 10년 동안 4명의 보조 출연자를 거쳤는데요. 일관된 현상이, 보조 출연자가 교체될 때마다, 전보조 출연자한테 맨 마지막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출연자가 교체되면 한 6개월 정도는 클레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조금 길게 가고 있는 현상이어서, 통상은 저희가 CS 대응을 하고, 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답글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6개월을 진행해 왔는데, 그 추세가 조금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고민스러운 지점은, 저희도 정량적인 분석을 해 봅니다. 저희가 시청률 지표는 저희가 PP채널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 인터넷 다시보기가 1년에 한 500만~600만 정도로 매년 나오는데, 박슬기 보조 출연자로 교체되고 그전 보조 출연자 시절보다 평균 다시보기 횟수가 한 12% 증가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를 5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5점 만족도를 주는 사람의 숫자도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1점으로 매우 박하게 주시는 분들이 소수가 조금 심각하게 하세요.

ID도 한 10개 만드셔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작진이, 담당 PD가 직접 통화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통화 나누신 분의 의

견을 전달받아 봤는데, ‘인간적으로 싫다.’ ‘박슬기가 나오는 타 프로그램 채널도 나는 보다가 그냥 돌린다.’ ‘즉각 출연 정지시켜라.’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 감성에 의지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출연자를 교체 시킨다는 것은 너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서 제작진이 현재까지는 교체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장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신 평가점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점수를 객관적 지표로 한다기보다는, 주요 시청자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사실은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500회, 1,000회 기념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해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용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결국 어린이들의 눈높이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출연자에 대해서는 이 스타일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게시판 운영이나 만족도 평가 방식도 사실 만족도를 정량지표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점수를 주시면서 일중에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필드로 삼는 역할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량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선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고, 혹은 다시 보기가 끝난 다음에 콘텐츠 평가하는 것으로 팝업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서병기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시청자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저도 제작 발표회를 가면 박슬기가 MC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너 톤을 조금 낮춰라.”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의 톤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조금 특정 몇몇은 보면 시끄럽게 들리는 수가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아마 그게 민감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보낼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걸로 교체를 한다면 EBS로서도 굉장히 그건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부정적인 게시물 그분 몇 개를 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안 주신 괜찮은,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괜찮다', 그냥 'Not bad.'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그것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남을 것 같고요.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은 같습니다.

< 극한직업 > - 겨울 대목을 잡아라! 과메기와 김

○ 위원장 서병기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극한직업> 과메기, 송대갑 위원님.

○ 위원 최창윤

최창윤입니다.

말씀 드리기 앞서서 추가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편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편성 플랜 보고 때 함께 말씀 주실 건가요?

○ 편성센터장 김광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개편안은 시청률 분석하고 편성 개편의 주요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편성 비율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편성 비율을 저희가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아·어린이나 청소년들이 TV 브라운관 앞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공영방송으로서, 또 1TV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편성비율을 나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아·어린이는 약 25%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청소년 비율은 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이나 여가시간에 볼 수 있는 지식채널e 같은 프로그램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 percentage가 실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보다 조금 높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성인이 나머지 한 50 초반대에서 55%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TV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전 세대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 EBS에는 PP채널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TV는 사교육 경감 및 지식교육 격차 해소 채널로 해서 초·중학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M은 외국어 학습 및 인문교양 채널, 그래서 외국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Plus1은 수능을 담당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고교생이면 대다수가 이 Plus1과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lus2는 초·중학 학습 및 직업교육 채널로 초·중학생 대상 및 성인 직업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EBS English 채널이 별도로 있고, 키즈 채널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TV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해당 채널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창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송 위원님.

○ 위원 송대갑

송대갑 위원입니다.

1월 31일 방송된 <극한직업> '겨울 대목을 잡아라! 과메기와 김' 편인데요.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극한직업>은 2008년도 2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이어오고 있는 EBS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주 시청층이 성인들인데, 무척 좋아하는 EBS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치를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반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 대목을 잡아라! 과메기와 김' 편은, 한 겨울철에 맞는 시의적절한 소재의 선택이었으며, 두 식자재를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노동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바다 위에서 위험한 노동 수행을 하는 김 수확 현장과 지상 덕장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과메기 건조 현장을 교차 편집하여 지루함을 덜어내는 대비 효과가 빛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일상 업무가 아닌, 대목을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친다는 작업자들의 어떤

절박한 서사를 부여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스토리텔링도 훌륭했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도 아마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께서 <극한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리뷰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극한직업> 작업 환경이 굉장히 위험성을 노출하는 그런 작업장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염려 부분인데요. 구체적 예는 생략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에 대한 우려로 다소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자가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 책임자가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했다면 더 깊은 시청 몰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인데요, 비록 노동 현장은 열악하지만, 또 특히나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3D 업종을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의미를 시각적 영상으로 증명해 내어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일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극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협력제작부장 이호

안녕하십니까. EBS 협력제작부장 이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극한직업>은 2008년 2월 말에 편성돼서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과 리뷰는 저희 제작진에게 잘 전달이 돼서 오늘도 극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휴머니즘을 동반한 스토리들을 담아내는 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고단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위기 탈출의 순간만이 시청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안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면에 담기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작의 효율성이나 재미만을 쫓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화면 구성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거부감이라든가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까지 좀 더 노력하면서 현재의 <극한직업>에 최대한의 소구력을 담

보하고, 앞으로도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EBS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제작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답변 감사합니다.

< 세계테마기행 >

○ 위원장 서병기

다음에 <세계테마기행>, 박이슬 위원님 의견.

○ 위원 박이슬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슬입니다.

저는 시청자 접근성 측면에서 EBS 홈페이지를 특히 많이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TV 편성에 시청자가 따라갔다면, 요즘은 온라인 기반으로 시청자가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EBS는 어떻게 접근성을 취하고 있나 살펴보던 중에 저는 <세계테마기행>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테마기행> 홈페이지라든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세계테마기행>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세계지도 기반의 Interactive 탐색 메뉴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세계테마기행>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 삶을 깊이 있게 전달해 온, 이것은 방송을 떠나서 귀중한 영상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시청자들은 최신 방송일자 순으로 프로그램을 소비하기보다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정보를 찾기 위해 <세계테마기행>을 검색하고 해당 회차를 찾아서 시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홈페이지 탐색구조를 조금 더 시청자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래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연히 방송되고 나면 최신 방송 회차별로 나오는 순서인데, 이것을 저는 그다음 페이지처럼, 이 건 제가 AI로 한번 그냥 간으로 만들어 본 건데, 세계지도 기반 탐색 메뉴로 재편성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화면에 세계지도를 이미지 형태로 배치를 하고, <세계테마기행>이 방 문한 국가나 주요 지역들을 지도 위에 아이콘 형태로 표시해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방송 회차 영상 클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을 한번 구상해 봤고요. 이렇게 되면 시청자는 단순히 방송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해 하는 지역을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해당 콘텐츠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여기에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뉴 구조는 하단에 함께 유지만으로써 현재 방식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이용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탐색 방식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는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확장하는 방향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서 제언을 드려봅니다.

○ 협력제작부장 이호

다시 협력제작부장입니다.

말씀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유관 부서에 제가 의견을 전달을 드렸더니, 일단 제안해 주신 세계지도 기반 Interactive 탐색 메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도 제작자이면서 시청자의 일원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실 '기존의 브라운관을 탈피해서 Interactive하게 시청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최신 방송일자 순으로 소비되던 콘텐츠를,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지역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고 이용 편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유관 부서에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방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구글 마이맵스를 활용해서 EBS 자체적으로 공식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저희 <세계테마기행>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행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현재 단계는 각종 프로그램에 있는 여행 정보와 지리 정보를 메타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 연내 실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대로 실행이 될 경우에 연내에도 변화된 홈페이지를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홈페이지 안에서 자유롭게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Interactive하게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담긴 해당 지도를 지인들과 손쉽게 나눌 수 있도록 외부 공유 기능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도 기반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세계테마기행>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방송 시청을 넘어, 시청자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문화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박이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병기

지도 기반 탐색 메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방송 중에도 이동하는 과정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년 특집 클래스 e > - AI, 모든 것의 미래, 모든 이의 미래

○ 위원장 서병기

마지막으로, <신년 특집 클래스 e> 'AI, 모든 것의 미래, 모든 이의 미래'와 관련된 정선경 부위원장님의 의견 제시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선경

안녕하세요. 정선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쪽 라인에 앉았을 때는 프로그램 한두 개만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빨리 끝났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완전히 몇 년, 1년 치를 다 다루는 것 같은 밀도 있는 토론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뭘 보고 오지? 오늘 다 다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쪽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작 관련 부서장님들, 부장님들, 시청자위원이 내는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한다고 하시고 개선점을 하시고 그래서 '아, 이 회의가 원래 이런 거였구나.' 새삼 다시 한 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한 프로그램은 공교롭게도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부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격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AI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신년에 이런 특집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걸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 가지고 제가 찾아서 봤고요.

그다음에 편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모니터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그거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만, AI에 관심이 무척 많았는데 새해 벽두에 거대담론의 화두를 던져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너무 잘 됐던 게, 거대담론에서부터 실무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Segmentation까지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지적할 건 없고, '시기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아주 잘 던져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각 강연자별로 특징도 다 달랐고, 그다음에 편수에서 느끼는 것도 다 달라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화두로 던졌던 '한국의 50대들이 왜 AI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낮을까.’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한 것 같은데, 이 한편으로는 그 해답을 끌어내거나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속되는 기획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로컬에서 돌아가는 AI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쓰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각 회사의 기밀을 AI에 학습시켜서 AI만 똑똑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사에서 로컬로 돌리는 것을 남편이 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한 세상도 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취재해서 연속적인 기획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지식, 클래스 e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 제가 재직 중에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역시나 AI 가지고는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 따는 게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시한 정부에 원서를 낼 때, 지원서를 낼 때 ‘이런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습니다.’라고 시한을 줬는데, 그거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그런 욕구가 제일 많았던 것 보고,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피드백이 많이 달린 거 진짜 오래간만에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 제작을 어디서 했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우리 후배님들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제가 퇴직하기 직전까지 썼던 세트를 아직도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 좋은 제작비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제 시청자위원회의 첫 멘트로 같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답변을..

○ AI지식콘텐츠부장 오정호

EBS AI지식콘텐츠 부장 오정호입니다.

원래는 ‘지식콘텐츠부’였는데 올해 초 AI지식콘텐츠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AI의 무게가 상당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AI를 체험하는 느낌이 약간 쾌감이 있습니다.

정선경 부위원장님께서 칭찬 일색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제작하는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AI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50~60대들이 'AI 시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전제하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고백을 하자면, 실제 이 콘텐츠는 이미 낡았습니다. AI 시대에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F1 경기에 자동차처럼 타이어를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이 AI 교육 콘텐츠는 1~2개월만 돼도 바로 낡아버려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향후 성인 AI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에 오픈AI의 보고서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Capability Overha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역량 격차'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AI를 아주 잘 쓰는 사람과 그냥 일반 사용자 사이의 역량 격차라는 뜻입니다.

못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와 잘 활용하는 사용자 간의 그 격차가 7배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이 'AI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자 이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어린이 세대를 보면 단순한 어떤 AI의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비판적 관점을 지닌 AI 시대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AI 교육의 대상은 상당히 세분화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6월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처음 배우는 AI> 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킥오프 회의를 했고요. 아마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나는 우등생이 되고 싶다',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의 일상적인 바람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 줄 AI 메타 기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도, 물론 그 안에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나는 내가 만든 상품을 잘 팔고 싶다'라는 이런 경제적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나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달에도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 동서고금의 고전을 올해만 200편을 데일리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아마 퀄리티는 위원님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올 것입니다. 단순히 영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고증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악마는 항상 디테일 속에 숨어 있어서 매일매일 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전환, 즉 AX라는 것을 저희 제작진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실 작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렸고, 편집자는 AI가 편집을 해 주고 있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음악도 AI가 만들어주고, 번역도 AI가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자막도 올려주는 것도 AI가 합니다.

이런 측면을 보자면, 우리가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반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사실 AI 시대의 경험인데요. 이 경험을 사실 저희가 먼저 체득을 해 보면서 나중에 경험을 나누는,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AI 시대에 갖고 있는 두려움을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병기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의견 제시와 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별 말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